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 직무만족 및 노후준비의 영향을 중심으로

류 성 봉(전남대 박사) · 김 경 신(전남대 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외형상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임금실태가 특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피해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관련된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2년 5월 1~1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5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66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분석으로 Scheffé방법을 통한 사후검정,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은 3.42(SD=0.49)점, '직무만족'은 3.13(SD=0.55)점, '노후준비'는 3.28(SD=0.50)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변인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 혼인상태, 주택소유상태, 월평균소득, 직위, 근무년수, 시설분야, 이직의사, 업무환경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시설관련 변인, 업무환경 인식 변인을 이용하여 노후준비와 은퇴전망, 직무만족, 삶의 질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4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만족($\beta=.32, p<.001$)', '정서적 노후준비($\beta=.29, p<.001$)', '은퇴전망($\beta=.17, p<.001$)', '현직장근무년수($\beta=.13, p<.001$)', '신체적 노후준비($\beta=.09,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후대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이 요구되어지며,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현실성 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직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상체계를 고려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3교대제 근무의 시행과 탄력적 근무제도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업무환경은 삶의 질은 물론, 노후준비, 은퇴전망,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무만족', '정서적 노후준비', '은퇴전망', '현직장근무년수',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직무만족의 영향이 삶의 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환경 인식, 이직의사, 소득수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업무환경, 이직의사, 소득수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